

서울 초수 합격수기입니다.

[1차 점수] 교육학 : 16.33 + 전공 : 51 = 67.33 (1차 컷: 67.33)

[2차 점수] 실기 : 27/30, 심층면접 : 36/40, 수업실연 : 18/20, 지도안 : 8.97/10

합계 : 67.33(1차) + 89.97(2차) = 157.3 (최종 컷 : 152.14)

## [1차]

저는 1차 점수가 정말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1차 공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상반기에 교육대학원+조교 병행으로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 여름에 타 강사의 심화이론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본격적인 공부는 2019년 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교육대학원 논문대체수업+ 주 2일 행정조교를 병행하며 공부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거의 매일 10~12시간씩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주에 1번 정도 오후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정도의 휴식만 취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매 강의마다 첫 시간에 장쌤이 알려주시는 공부법을 따라서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상팀 연간패키지와 교육학 ㅇ스ㅎ(여) 연간패키지를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저의 1년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상반기(1~6월) - 대학원수업 + 조교 병행 / 전공 인강, 교육학 ㅇ스ㅎ(여) 인강

상반기는 수업과 조교 출근 때문에 매일 공부시간도 달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할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 전공과 교육학 학원 강의 진도를 따라가고 복습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중 전공 4일, 교육학 2일로 나누어 공부를 했었고 일요일은 쉬거나 대학원 논문대체 수업 과제를 하였습니다. 조교 출근하지 않는 날은 9~10시간 정도 공부, 출근하는 날(주 2일)은 집에 와서 30분~2시간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꼭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5~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조교/ 전공복습	문제풀이	교과서분석	전공복습	조교/ 교육학복습	교육학인강	전공보충+ 과제
오후	조교/ 전공복습	문제풀이	교과서분석	전공복습	조교/ 교육학복습	교육학인강	놀이!
저녁	수업/ 전공복습	복습	복습	수업	교육학인강	교육학복습	놀이!

● 하반기(7~11월) - 공부에 올인 / 전공만 직강, 교육학 ㅇ스ㅎ(여) 인강

2달 단위로 대략적인 요일별 영역을 나누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8월까지의 교육학 요일을 따로 정해서 1.5일정도 하였는데 9월부터는 오전으로 쪼개서 전공을 매일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6월쯤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일별로 영역을 정해 매일 1시간정도 외우고 인출하고 인증하는 온라인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주에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9~10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교육학	교육학	교육학	교육학 모의고사	교육학 모의고사	문풀 직강	교육학 인강
오후	서미사	서미사	동미사	미교론	표현	문풀 직강	놀이 or 문풀복습
저녁	서미사 문제	동미사	동미사 문제	미교론 문제	교육학 인강	문풀 복습	놀이 or 문풀복습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역량	미술창작	미술감상	방향	x

그리고 저는 체계적인 계획 세우기에 재능이 없어서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매일 순 공부시간과 당일 날 공부할 부분만을 그때그때 대략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혼자 정한 약속으로는 매일 아침 8시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집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7시 55분에 일어나 세수만 하고 8시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잠을 7~8시간 정도 안 자면 오히려 그날 공부하는 내내 계속 조는 스타일이어서 11월까지도 최소 7시간씩은 꼭 잤습니다. 그리고 낮에 너무 졸릴 때는 30분 정도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하루 순공부 시간은 10~1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11월에는 평균 11시간정도 매일 공부하였습니다.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① 서미사 안들기 (미교론) 3:00	① 교육학 → ② 미교론 ③ 서미사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30	① 서미사 안들기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1:00	① 서미사 안들기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30	① 교육학 모의고사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1:15	① 교육학 모의고사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8:30	* 놀이 ① 미교론 ② 교육학 ③ 서미사 7:20
① 교육학 장수스터디 9:49	① 교육학 →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8:40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20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45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01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25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15
① 서미사 장수스터디 3:02	① 교육학 →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16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20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15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24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00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7:10
① 교육학 장수스터디 9:12	① 교육학 →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1:07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20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04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46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17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8:00
① 교육학 장수스터디 00:20	① 교육학 →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50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20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10:04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46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9:17	① 미교론 장수스터디 ② 미교론 ③ 서미사 안들기 ④ 미교론 장수스터디 8:00

7~10월 직강을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등수는 항상 대략 300명 중 100등 근처였습니다. 한번도 50점을 넘어 본 적이 없었구요. 모의고사 등수가 실전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참고는 하되,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강을 다니며 장쌤께 대면첨삭을 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가 약해 모의고사 점수는 낮았지만 문제가 물어보는 취지파악과 이론 적용은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었고,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딱딱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해야 할 공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대면첨삭을 받는 것을 보며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의 답안과 스스로의 답안을 비교해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간패키지를 들으며 받은 모든 문제들을 모범답안에 가깝게 쓰기 위해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 맞았던 부분은 거의 다시 풀어도 맞고 틀렸던 부분은 다시 풀어도 절반 이상은 또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했거나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함께 보며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모범답안에 맞은 부분은 파란색 형광펜, 틀리거나 몰랐던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다음에 두 번, 세 번 풀었을 때와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5,6월 강의 문제는 7,8월에 한번, 9,10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이렇게 거의 4번 정도 풀었습니다.

● 기출분석

기출분석 강의를 듣긴 했지만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최근 14~19학년도 기출만 아래 사진과 같이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형식은 다른 분의 합격수기에서 보고 참고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가끔씩 확인하고 같은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는 대략 3년간은 나올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여 공부를 할 때 최근 3년간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영역을 위주로 많이 회독하였습니다.

	2017	2018	2019
표현	<p>드로잉-컨투어드로잉</p> <p>오목판화 - 매조인트 - 돈 형성 과정</p> <p>서예-영자(2017, 2018)</p> <p>에른스트-프로타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p> <p>최고르기-부조제작과정</p> <p>질리온 사용하는 목적</p> <p>목공예-반달이, 사개물림, 장걸</p> <p>금속 장식의 기능</p>	<p>그리스 정동 조각상 주조 제작과정 (전통실납법) + 알지네이트</p> <p>키아로스쿠로</p> <p>판화-실크스크린 제작과정+문체정 조건</p> <p>문체서기 기법 - 덤범 귀알, 방법</p> <p>점화기-과슈(vs투명수채화)차이점</p>	<p>서예 - 전&amp;절, 삼절법</p> <p>드로잉 - 제스처 드로잉</p> <p>표현방법 - 데포르마시옹</p> <p>프레스코 제작 과정</p> <p>판화 - 불꽃판화 - 우드컷/우드인크</p> <p>레이빙 - 목재 제판형식, 강도</p> <p>종이만들기 과정 - 사이징처리, 문체해결</p>
패키지 디자인 중 브랜드 로고 레아웃 가산혼합		<p>저드<sup>2</sup>의 색채조화론 4가지</p> <p>오르가닉 디자인+알바알토1931의 자셀 애니메이션</p>	<p>배색기법 - 제퍼레이션, 레퍼디션, 명시성, 주목성</p> <p>알트루보 - 알폰소우하</p> <p>사진 - 피사체 심도</p> <p>인포그래픽 제작 - 2018</p> <p>서체 - 산세리프체</p>
미교론	<p>마인드맵</p> <p>조쉬론 - 기호학 중 기표,기의</p> <p>다문화 미술교육 목적 - 맥피 방법 - 활동구성</p> <p>교과영역-자기주도적미술학습능력</p> <p>개념</p> <p>교육과정-중학교 표현 중 내용요소,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p> <p>중학교 표현 - 벽화그리기</p> <p>아이스너 평가관점,평가내용</p> <p>재정기준표의 문제점 수정</p> <p>포드폴리오법</p>	<p>시각문화 미술교육 목표 - 단정(권한부여)</p> <p>일출의 평가 항목</p> <p>중학교미술 - 표현 - 성취기준</p> <p>허버트리드 - 자유표현/ 교사의 역할/ 아동의 표현 유형 분류가 시사하는 바</p> <p>교육과정 미경2-4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p> <p>수용미학 - 작가,작품,감상자의 관계 / 감상자의 역할</p> <p>대화중심 감상법 - 대화 특징</p> <p>발문에 담긴 교사의 의도</p>	<p>애플랜드 - 미술의 인지적 특성(시각문화)</p> <p>교육과정 - 중학교체현, 내용요소, 기능,성취기준의 개념,정의</p> <p>학교급별 성취기준</p> <p>앤더슨 - 펜드먼 '기술' 비교, 앤더슨의 평가단계</p> <p>문제중심학습(PBL)</p> <p>아이스너의 표상형식</p>
동양 미술사	<p>전통회화-김두환-묵혼법,해조묘</p> <p>삼국시대 가람배치 형식</p> <p>백제 미륵사지 가람배치,불교신앙</p> <p>탑과 금당의 관계</p> <p>교사인물화 - 탁족도/풍속화</p> <p>소제, 화풍 및 화면구성, 인물표현방법</p>	<p>민화-문자도/주목화+삼여도</p> <p>물고기 상징성, 삼목법, 삼여의미</p> <p>수석사 대웅전 - 금산사 미륵전</p> <p>지분/의의/공포/크기 - 2018</p> <p>인상-니금산수도&gt;-재료,기법</p> <p>영향- 안견화풍 변화된 특징</p> <p>통일신라시대 범종-비천상</p> <p>한국vs중국 용뉴/비천상 종류</p> <p>고려시대 범종 변화</p>	<p>전통회화 창작태도 - 모.임.방</p> <p>조선후기 조상화 - 눈동자, 혼업법</p> <p>고구려 벽화 무덤 - 순서/천정구조/축조방식</p> <p>1기 벽화 내용-내세관</p> <p>전통미술-정선(조선후기)vs별관식(근대) : 시점/준법, 시점/표현기법, 정경인물의 표현 효과</p>
돈황석굴	<p>중국회화-청-왕시만,척도</p> <p>화파/동기상화론/고화에대한태도</p> <p>비교</p>	<p>전통회화- 의재필선, 흉측성숙</p> <p>양주팔괴, 계화법</p>	<p>간다라불상-그리스,로마 조각상과의 교류, 자세,복식 특징</p>
서양 미술사	<p>미디에사드-줄리앙오피</p> <p>메이나라-1970년대미국</p> <p>주디사카코&amp;신디셔먼 각 제작방법, 여성성에 대한 관점</p> <p>광공미술-리처드세라, 마이 리</p> <p>철거 논란, 잘린 예시 비교</p> <p>엘레니중형식-클레지키와비교</p> <p>조형적특징</p>	<p>허버트리드 - 제작방법, 공간특성, 구제, 인형</p> <p>피구라 세르펜티나라, 메테리움-조각상 특징</p> <p>수태고지-백합의 상징적 의미</p> <p>인물의 표정- 자세 - 긴장감,이유</p> <p>초상조각- 로미오vs현대 - 2018</p> <p>대상/주요재료/표현방법/크기로인한 효과/시대,사조</p>	<p>중세 건축 - 에프스, 공물</p> <p>현대조각 - 연성조각 - 반형태</p> <p>규성주의(산업화)</p> <p>대지미술-마이클하이저-반문화</p> <p>크라우츠 - 확장된 집</p> <p>차질주의 쿠르베-원시주의 마네</p> <p>전통의 부정과 수용</p> <p>현대 조각 - 아외/실내(공간), 재료의 주제표현효과</p> <p>카푸아&lt;구름문&gt;, 콘스&lt;풍선개&gt;</p>

## [2차]

### ● 실기 - 27점

저는 노량진에 있는 소묘실을 다녔고, 1차 발표 전까지는 인체소묘 주 2일, 디자인 1일 / 1차 합격 후는 소묘는 그대로, 디자인만 주 3일로 늘렸습니다.

저는 서양화 전공으로 정물수채화로 입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6년간 미술학원에서 수채화+정물 소묘를 가르쳤던 경력이 있고 기본적인 형태력이나 양감 내는 법 등은 자신이 있어 인체소묘는 나름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술학원에서도 인체소묘는 체감상 중상위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묘는 무난히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 소묘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평달에 실기학원을 다녀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은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구요.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어느 정도 정해진 패턴에 맞춰서 주제를 표현하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조건을 꼼꼼히 읽고 빠뜨리지 않았고 주제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완성은 하고 나왔다.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바로는 디자인은 1. 조건을 잘 지키고, 2.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3. 오브제의 적절한 사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술학원 원장선생님께 점수를 말씀드렸더니 엄청 놀라실 만큼(..) 평소에 디자인을 잘하지 못했는데 위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점수를 높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실기에서 변별은 인체소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술학원에서도 이제까지 실기를 고득점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체소묘를 잘하시는 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인체소묘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실기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심층면접 - 36점

서울의 면접 변별이 크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와서 저는 실기 못지않게 면접 준비에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감, 미소, 그리고 시책을 녹여낸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발표 전에는 체육, 음악, 미용 교과 분과 네 명에서 주 2회 정도 노량진 스튜디오에서 만나 서로 돌아가며 면접레시피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 내에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기간제 경험이 있거나 장수생 분들이시기도 했고 다른 교과와 면접 스튜디오를 하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다양한 시각에서 서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각자 실기시간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새로운 스튜디오를 구했습니다. 주 3회 정도 미술학원 가기 전 오전에 만나 15분씩 실전처럼 연습하였습니다. 저는 1차 붙을 줄 몰라서 시책은 거의 안 외우고 있다가 1차 발표 후부터 잠을 줄여가며 외웠습니다.... 시책은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자기가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튜디오이랑 분량 정해서 나눠서 정리하는 것도 해봤는데 남이 정리한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ㅏㅏ

● 수업실연 + 지도안 - 18점 + 8.97점

2차 강의를 들으면서 장쌤이 짜주신 스터디원들과 함께 주 2회 수업실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주 1회 스터디를 하였고 실기시험이 끝난 후는 매일 수업실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차 중 그나마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이 수업실연이었는데 실전에서 스터디 때 해보지 못한 주제가 나와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실연 중에 자연스러운 미소와 여유로움,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익히 들었던 대로 면접관 세 분 중 한 분은 거의 고개도 안 들고 저를 거의 보지 않으셨고 나머지 두 분은 무표정으로 내내 보셨고 다 끝나니까 웃어주셨습니다.. ㅎㅎ

초수라서 2차 정보가 많이 없었고 스터디 구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커트라인은 사실상 붙기 힘들다는 말도 많아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끝까지 실기, 면접, 수업실연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점이 적어 최종 컷보다 5점 넘게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워낙 2차 변별이 커서 1차 점수가 낮아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했던 저를 1년 동안 잘 이끌어주신 위상 선생님과 장지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